

현주소 (現住所)

사람은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내가 과거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미래에 어디서 살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어디서 살았든, 각자마다의 사연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니 나의 업보이며 나의 과거 행적이다. 또 내가 미래에 어디서 살지는 나의 계획이고 희망이거나 막연함일 뿐,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자각해야 하며, 지금 이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은 삶의 청량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중에는 작년에 266 대 로마 교황으로 즉위하신 프란치스코도 계시고, 작년에 작고한 벨슨 만델라,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도 계신다. 이분들의 삶은 지극히 공통된 점이 많다. 강론이나 저서나 삶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나와 같은 범부들에게는 특별하고도 신선하게 느껴짐이리라.

교황께서는 첫미사때 강론에서 ‘걷기(walking), 짓기(building), 신앙고백(professing)’을 교회의 세가지 임무로 제시하고 영적 쇄신을 통한 교회재건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십자가없이 걷고, 십자가없이 뭔가를 짓고, 십자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제자가 아닌 세속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목요일날 로마근교 소년원에서 12 명의 소년원생에게 세족식을 하였는데, 그중에는 2 명의 소녀 소년원생, 2 명의 무슬림, 1 명의 그리스 정교도가 포함된 것이다. <전통>을 강조하는 현대 기독교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다. 여성도 처음이고, 무슬림도 처음이고, 아프리카 이민자와 집시들로 구성된 범죄자 소년원생인 것도 처음이다. 역대 교황들은 대부분 남성 사제들의 발만 씻겨주었기 때문이다. 교황 즉위명인 ‘프란치스코’는 평생 가난한자와 소외된자, 병든자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 살았던 수도사였다. 그분의 강론은 “가장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로마 주교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물인 환경을 존중하며,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교황께서 머무는 곳은 호화로운 바티칸 관저가 아니라 150 명의 사제들이 묵는 게스트 하우스인데, 나무로 짠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소형 냉장고가 전부라고 한다. 지금도 그는 밤마다 수행원들 모르게 빈민가에 빵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 어쩌면 이런 <극히 작은 일>들이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이다. 또 교황께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존엄성이란 일을 통해서만 확보됩니다. 내가 스스로 벌어들여,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가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하신다. 또 “<권위>의 어원은 <성장하게 하다>라는 뜻이며, 억압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중요보다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오만함>을 가장 혐오한다.”고 했다.

메리 포플린의 저서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에 보면 <마더 테레사>의 <일과 섬김>에 대해 알 수 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과 같다고 한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캘커타의 사랑의 선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남을 돕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를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길 뒤늦게 깨닫는다. 이 책에서 <사회사업>과 <종교 사역>의 차이점을 말한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기 보다, 내 분별력과 상황 통제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착해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뿌듯해 한다. 그러니 선한 일은 대부분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일 때가 많다. 말콤 머거리지는 마더를 이렇게 기록한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사회사업에 불과하다. 사회사업은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 즉 그들의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영적 피폐함까지 함께 구속받아야 한다. 그들과 함께 비참함을 나누어야만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만 비로서 그들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더가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역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의 신앙적 삶은 엄청난 괴리와 모순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 앞으로의 삶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죄스러움으로 번민하게 된다. 굳이 위로한다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나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를 명심해야 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지금 이자리에서 겸손하게 말은바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의 말씀을 등대삼아 오늘도 힘차게 노저어 나아가자.